

■ 휴가철에 더 바쁜 한전 전남지사 하루



한전 광주 전력관리처 직원들이 연일 계속된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자 송·변전 설비 상황판을 격정스런 눈길로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3,4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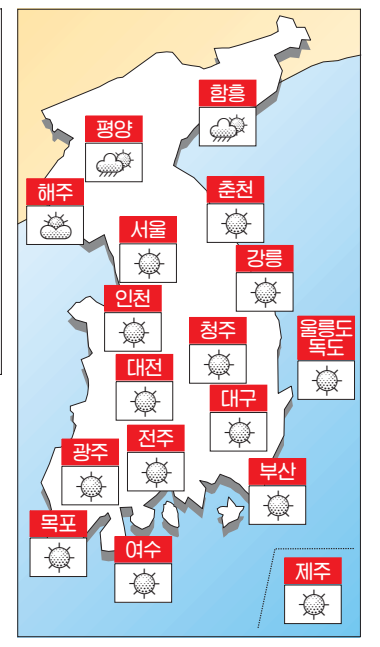
올보다 12.3% 인상

내년도 노동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2.3% 오른다. 노동부는 2일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8시간 기준)으로 확정·고시했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8만6천480원, 주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72만7천320원이 각각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2.3% 인상된 것이며,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되는 178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천4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낮 '폭염' 밤 '열대야' 8월 3일 (음 7월 10일) <전국날씨>

Table showing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onnam. Includes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1.5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먼바다=남서~남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7:31 썰물 < 00:44 20:39 여수 밀물 < 02:01 썰물 < 08:24 15:27

연일 폭염...停電을 막아라

고장·정전 신고 접수 1시간 내에 복구 상황판·모니터 보며 예비전력 점검 분주

연일 무더위와 열대야(熱帶夜) 속,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선풍기·에어컨·냉장고 등 전력 사용량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면서 정전 사고에 대비, 비상근무에 돌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다.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전 전남지사 별관 3층 고객센터, “따르릉~” 입구에서부터 전화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댔다. “여기 곡성을 대령인데요.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와서 봐주세요.”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오자 한 상담원이 컴퓨터에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을 입력했다. ‘정전 접수 목록’ 창에는 ‘처리진행 중’이라는 글씨가 떴다.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25개 지역사업소 중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력관리처에 따르면 잠마 후 지난 달 31일 밤 11시 광주·전남 전력 사용량은 335만kW를 기록했다. 지난해 여름 피크 타임 최고치는 370만kW(8월 17일). 하지만 올해는 무더위로 385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축된 양보다 더 많은 전기가 빠져 나가면 전압이 낮아져 불빛 등이 흐릿해진다. 전력관리처는 이를 막기 위해 여름 전력 예비율 수준을 10~1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장이 밀집된 여수 여천공단에는 14억원을 들여 송전선로 3.5km를 새로 깔았다. 여수시 중흥동 용성변전소에도 변압기 1조(3대·시설비 15억원)를 증설했다. 개통운영부 국순걸(48) 과장은 “무더위 때는 하루에 네 번 이상 변전 설비를 점검하고, 갑작스런 기습 폭우와 천둥·번개에도 대비하고 있다. 남들이 휴가를 갈 때 우리는 더욱 바쁜 하루를 보낸다”며 모니터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 제2순환도로 효덕IC~풍암지구 장애인 차량통행료 50원 인하

민자유치 구간인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효덕IC~풍암지구)의 장애인 차량 통행료가 500원에서 450원으로 내렸다. 광주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장애인 차량 등 감면대상차량에 대해 광주순환도로 통행료를 기존 500원에서 450원으로 50원 인하여 징수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장애인 차량 등 감면 대상 차량을 정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인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징수 편의를 위해 통행료를 100원 단위로 징수하도록 민자도로 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이유로 들어 지금까지 정상요금 900원에서 400원을 할인한 500원을 받아왔으며, 이는 관련 법에 따른 50%가 아닌 44% 감면에 불과한 액수였다. 최근 장애인 오모씨가 이 같은 문제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으로 접수, 고충처리가 이를 받아들여 협약 내용 개선을 시에 권고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Table with 6 columns: Day (4th, 5th, 6th, 7th, 8th, 9th), Weather icons, and High/Low temperatures (e.g., 24/32, 25/33).

Table titled '생활안내' (Life Guide) listing various services like '교통안내' (Transportation), '상담' (Consultation), and '신고' (Reporting) with phone numbers.

불·별·더·위...광주 33·순천34도

광주의 2일 낮 최고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3도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는 지난달 14일의 32.7도였다. 습도도 높아 불쾌지수는 낮 12시 81.4를 기록했다. 불쾌지수 80은 그 지역 주민의 절반 가량이, 83은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치다. 이날 광주의 새벽 3~6시 사이의 습도는 82~83%로 '후텁지근'했고, 아침 최저기온은 25.5도로 관측됐다. 전남은 순천이 34도를 기록했고 ▲목포 33.6도 ▲진도 33.1도 ▲해남 32.7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3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에는 최고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불쾌지수=날씨에 따라 인간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조합해 나타낸 수치. 기온과 습도가 함께 높아질 때 더 높은 값을 나타내게 된다. 지수가 68~70일 때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대기가 불안정해져, 한 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지부 41% 동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로부터 1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모아 이달 말께 교육부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과급의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안에 반발해 지난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천여명에게서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2001년 공무원성과급 도입 반납 투쟁을 벌여 298억원을 모은 적은 있지만 교육부에 반납하지는 않았다. 광주 지역 총 276개 학교 1만324명 중 41.1%에 달하는 교사가 7일 말 현재 ‘차등 지급권’ 성과급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교사-학 교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성과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 했던 J여교의 경우 60여명 교사 중 23명이 참석했으나 학교와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37만여명의 교사들에 대한 3천578억원의 성과급 지급을 10일 이후로 연기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비리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시켜달라

변협, 사상 첫 법무부에 요청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홍)가 소속 회원 중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일부 회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6월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한 뒤 실행했다”고 2일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법을 토대로 소속 변호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변호사법 102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돼 등록취소·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비리 혐의 변호사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1986년 11월 탈북정경계범회가중처법법 위반죄로 기소된 변호사 S씨의 사례가 유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변협으로부터 ‘비리 변호사’ 9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Yongbongdong M-tower' (용봉동 M타워 분양 및 임대)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text about sales and rental.

Advertisement for 'Airpass' (세심합)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about air quality and health benefits.